

총선 D-21

민주당 공천 결과 분석

유권자·후보자 실망시킨 '그들만의 잔치'

공심위 운영의 묘 못살려 '개악 공천' 원성 탈락자 무소속 출마 불보듯... 선거관세 요동

통합민주당의 공천작업은 후보자와 유권자,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결국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민주당과 통합민주당의 통합이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 구 민주계와 열린우리당계의 자본싸움, 정치 문외한들로 구성된 공심위, 무원칙한 심사기준 등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각종 변수가 겹치면서 통합민주당의 '개혁 공천'은 '공천 개악'으로 전락했다.

◇운용의 묘 못살린 공천 기준=박재승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 초심자들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 초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라는 기준을 내세워 박지원, 김홍업 씨 등 소위 '거물'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바람을 일으켰다.

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서도 전체 공천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박상천 대표는 광주 서구 갑·을, 광산구 갑 등 광주·전남 5개 선거구를 전략 공천지역으로 해 줄 것을 고집, 공천일정을 지연시켰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손학규 대표 역시 양당 통합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공심위에 휘둘리면서 당내 주요 계파의 이해관계 조

정에 실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불공정 논란 부른 여론조사=2~3차례에 걸쳐 실시된 여론조사는 매번 불공정 시비를 불렀다. 10여 년 전 후보의 직함을 여론조사에 사용, 해당 후보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1, 2위 후보 간 심사점수 차이가 거의 없는 초경합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특정 후보 공천탈락'이라는 내용이 발표되는 등 어수선 여론조사가 되풀이됐다.

또 타지역에서는 여론조사 조작 파문이 일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미숙한 공심위의 대응=공심위

는 공천 후보자 압축과정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이의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광주·전남권 탈락후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부분은 관련서류를 제시하거나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대신 구두로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쳐 후보들의 불만을 샀다. 또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심을 의결한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미루거나 미봉책으로 일관, 결과적으로 공천과정 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샀다.

◇무소속 출마 러시 불 보듯=불공정한 심사와 계파 나눠먹기로 인해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거관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공천에서 '물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구 민주계는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회귀한다면 총선에서 희망이 없다"며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탈락 후 무소속 연대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장관급 정치 신인들도 공천 탈락에 불복,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부터 받은 공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는 박위원장과 손·박대표의 모습에서 최근 공천과정의 불협화음을 엿볼 수 있다

광주		(*무소속은 출마선언·출마예정자)				
구분	민주당	한나라	민노	평화통일가정	통일한국	무소속
동구	박주선	김태욱		김공수		구봉우
서구 갑	유종필·조영택·심사중	정용화		문상필		국충현·정동식
서구 을	김경진	정순길	오병윤	이동규		
남구	지영문	노영복		공석윤		강운태·강도석
북구 갑	김기정	이기연	이봉훈	최한규		김경진
북구 을	김재국	김현국	김현정	양길문	고수일	이진석
광산구 갑	김동철	조재현	조삼수	박정수		송병태
광산구 을	이유섭	강경수	장연주	김경욱		

구분	민주당	한나라	민노	평화통일가정	통일한국	무소속
목포	(배중호·정영식)심사중	천성복	문소하	최승규		박지원·이상열
여수 갑	심사중	주봉심		주해성		장세석
여수 을	주승용	심정우	김형운	박귀연	김산	
순천	서갑원	김기룡	이수근	이정주		김완근·김경재
나주·화순	최인기	김창호	전종덕	김재근		
광양	유운근	김광영	유현주	김원빈		
담양·곡성·구례	김홍식(박상진·이영진)심사중	김문일		양우석		김김환
고흥·보성	(박상진·이영진)심사중	정귀석		박성근		신종식·진종근
장흥·강진·영암	유선호	채경근		김종열		강성재
해남·완도·진도	(민학식·이영진)심사중	설철호		이민호		이정일·최필길
무안·신안	전락영(전예진)심사중	고기원		서성중		김홍업·권영택·강성현
함평·영광·장성	이낙연	한남열		김영수		정광일·이상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3) 손학규(총로) 정동영(동작을) 송기정(강동갑) ◇경기(4) 제종길(안산 단원을) 조성준(성남 중을) 김태년(성남 수을) 한평석(고양 덕양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2) 박규홍(남구을) 한광원(중·동구 응진) ◇전북(2) 최규성(김제 완주) 장세환(전주 완산을) ◇충남(1) 박완주(천안을) ◇충북(1·전라지역 철화로 후보 확정) 김서용(보은 옥천 영동)
---	--

구민주계 '소멸' 손학규계 '약진' 정동영계 '쇠락'

■ 민주당 세력판도 바뀌나

통합민주당의 18대 총선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당내 역학 구도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번 공천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구 민주계의 소멸'이다. 지난 2월 대통령선거 때 통합했던 구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은 이번에 전멸했다는 평가다. 18일 현재 공천이 확정된 구 민주계 현역의원은 최인기의 원단 1명이고 원외인사는 김성순, 이용삼, 박주선, 성장현 예비후보 정도다.

여기에 범 동교동계도 김대중 전대통령측 박지원 비서실장과 김홍업의 원, 정균환 의원이 공천과정에서 '뒀서리'를 맞으면서 세력이 크게 위축됐다.

이에 반해 신당 측은 현역의원 대부분이 재공천되면서 당의 확고한 중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당내 최대계파였던 정동영계는 상당히 위축됐고, 반대로 당내 기반이 취약했던 손학규 대표측은 상대적으로 약진했다.

정동영계의 기반이었던 호남권이 대대적인 물갈이 표적이었던 반면 손학규계의 텃밭인 수도권은 단수후보 공천이 많아 재공천이 상대적으로 용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론조사 경선 맹점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초경합지역에 도입한 국민여론조사 경선이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 공천 채신을 가로 막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공심위는 1, 2차 압축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단순 적합도뿐 아니라 인지도, 물갈이 여론, 인지도 중 지지도 분포 등 다양한 통계 기술을 적용해 정치신인들의 일방적 불리함을 막아왔다.

공심위는 당초 최종 후보 결정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 한해 여론조사경선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1, 2차 심사 과정을 준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상천 대표 측에서 전략공천 뒀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여론조사 경선이 주류를 이루

적합도 조사 현역에 절대 유리 정치 신인들엔 높은 진입 장벽

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조사 경선은 현역 의원에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적합도 조사로 이어져 지난 2004년 탄핵들풍으로 국회에 입성한 '타돌이' 의원과 구시대 정치인들의 재공천을 보장했다는 지적이다.

17일 민주당이 결과를 발표한 25개 초경합지역의 여론조사경선 중 현역 의원이 경쟁을 벌인

지역은 17곳. 이중 현역 의원은 이상경 의원 등 4명이 탈락했다. 23.5%의 현역 교체율을 보인 것이다. 장경수 의원의 경우도 이날 탈락했지만 여론조사 과정에서 후보자 간 합의를 어겼다는 지적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공심위가 탈락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여론조사 경선에서 현역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적합도만을 묻는 질문을 할 경우

인지도가 결과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날 현역의원이 경쟁한 5개 지역의 경우 단 한 곳만 현역 의원이 탈락했다. 여론조사경선을 할 경우 70~80%는 현역의원이 재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론조사 결과만 살펴봐도 후보의 자질, 도덕성, 정책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2~3개 시·군이 합쳐진 지역구의 경우 지역 간 정치적 고려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론조사를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고 정치적 고려를 중요시함으로써 대폭적 물갈이에 성공했다.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물갈이' 국민 여론이란 큰 줄기만 보고 공천 심사를 강행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8년 봄 축제 (2008년 3월 21일 ~ 3월 24일)
지리산문화관광지

▶ 행사 프로그램

- 1. 봄맞이 노래자랑
- 2. 봄맞이 민속놀이
- 3. 봄맞이 민요경연대회
- 4. 봄맞이 민속공연
- 5. 봄맞이 민속시장

▶ 관람료

- 성인: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어린이: 3,000원
- 장애인: 5,000원

▶ 문의처

- 지리산문화관광지
- 전화: 061-270-1111
- 팩스: 061-270-1112
- 홈페이지: www.gisang.com